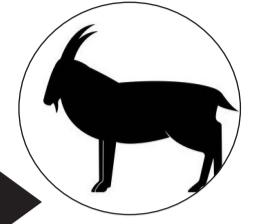


개에서 염소로... 바뀌는 복달임 문화



개 식용금지 특별법 8월 7일 시행
보신탄 찾는 손님도 날로 줄어
광주·전남 가게 속속 메뉴 변경
식감·맛 비슷한 흑염소 인기
수요 늘며 가격 5년새 3배 뛰어

여름철 광주·전남 '복달임'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복날(초복·중복·말복)에 개고기 복달임이 흑염소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식용종식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고기를 판매해온 식당은 메뉴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개 도축·판매업소는 265곳에 달한다. 광주는 개 사육농장이 8곳, 개식용 식품점·객업소가 14곳이다. 전남은 개 사육농장 117곳, 도축업소 5곳, 유통업소 17곳, 식품점·객업소 104개소다. 개식용 종식법 적용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전수조사를 벌여 파악한 숫자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거들떠오르지만, 이들 업소는 꾸준히 영업을 이어왔다.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유명 '보신탄'



복날 복달임 문화가 개고기에서 흑염소로 바뀌면서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흑염소 식당이 흑염소를 먹기 위해 찾은 이들로 가득하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식당은 여름만 되면 성수를 누렸다. 하지만 명맥을 유지해온 보신탄집들이 메뉴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순천에서 보신탄집을 운영하면서 개고기와 흑염소 고기를 판매하는 A씨는 "올해 복날까지만 개고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차 보신탄을 찾는 손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판매를 금지해 차라리 메뉴를 흑염소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고객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개고기를 기피하는 대신, 개고기와 식감, 맛이 비슷하고 고단백, 고

칼로리라는 점에서 흑염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 북구 유통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는 B씨도 "주력 메뉴를 흑염소와 삼계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2-3년 전부터 개고기를 찾는 손님이 부쩍 줄고 개농장으로부터 물량 조달도 어려워졌

다"면서 "더 이상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보신탄 판매 업소들이 흑염소 고기를 이용한 일명 '양탕'으로 메뉴를 변경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업주들의 전언이다.

흑염소 가격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거세 흑염소 기준 살코기가 도매가(1kg) 1만 3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2만 500원까지 올랐다. 5년 전 한 마리(40kg)가 30여만 원이었던 흑염소는 현재 100만원까지 올랐다고 축산업 관계자들은 전했다.

흑염소 식품점·객업소 주인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왕지도에서 흑염소 식당을 하고 있는 C씨는 "18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흑염소 가격이 오른 건 처음"이라면서 "흑염소 원재료 가격 부담 때문에 업종 변경을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손님들은 손님을 대로 너무 비싸다고 푸념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흑염소 농장주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완도 약산면에서 흑염소 5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D씨는 "최근 살코기 값이 1kg당 5만원까지 준다고 해도 물량을 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국 흑염소 농가는 1만 72곳(사육 두수는 43만 2000여마리)에 달하며 전남의 흑염소 농가는 1495곳(10만 8000여마리)이었다. 전국 흑염소 가운데 25%가 전남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법정공방 마무리 수순

법원, 지분변경 승인금지 소송 각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정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림 21%가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 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갈려 갈등이 반복됐다.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빚고을 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 측의 청구는 개발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주주변동의 승인금지)으로, 이는 현행 행정소송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광주시를 상대로 주주변동에 관한 승인 금지 등을 요구할 법적근거도 없고 소송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양·광주시 간 행정소송, 한양·우빈산업의 손해배상 소송, 케이앤지스틸·우빈산업의 주주권 소송 항소심이 모두 중결절차를 밟고 8월 22일 선고판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양제로 포장된 마약 유통 태국인 부부 검거

나주에서 1만 1207정 압수

출입국사무소 단속 사상 최대량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사상 최대량의 마약을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가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는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부부 2명

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를 광주지역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나주 임시거주지에서는 시가 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1만1207정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은 태국산 영양제나 녹차 티백으로 포장돼 있었다.

이들은 과거 수도권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최근 불법체류 태국인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광주·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 지역 국회의원 친척 수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친척이 지난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A의원의 사촌동생 B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경선캠프에서 근무한 B씨는 선거구 밖인 화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전남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측은 제보를 바탕으로 전남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부부의 마약 유통과 판매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경선 당시 B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A의원측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